



두번째 대화

송종용/심리학 박사, 서울학습장애상담센터 소장

세 살된 해원이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두 돌이 넘었는데도 해원이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해원이가 “잉~”하고 소리내면 할머니는 해원이의 억양, 표정, 몸짓을 보고 해원이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내고 해원이 뜻대로 해주신다.

해원이와 할머니 사이의 대화를 보면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할머니는 해원이를 사랑하는 걸까? 적어도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원이의 심정을 잘 헤아리고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할머니의 사랑과 행동으로 인해서 해원이는 굳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언어 발달이 지체되고 있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사랑은 아이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사랑이 아닐까?

해원이가 울어도 못 본 척하거나, 도대체 왜 우는지 이유도 모른다면 그건 대화라고도 할 수 없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 상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없는 것은 대화도 아니며 사랑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서, 관심을 표현하면서, 그러면서도 할머니처럼 해원이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반응하는 엄마를 생각해보자.

“뭘 해달라는 거니? 응? 말로 해봐.”

이런 말은 해원이에게 말로 표현할 필요성을 느

끼게 하므로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하고 요구하기만 하는 말은 아이에게 ‘엄마는 너처럼 느끼고 있고 널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 즉 사랑을 전달하기는 부족하다.

“네가 목이 마른가 보구나? 맞니?” (대답할 시간을 준다.)

“그래 목이 마를 때 뭐가 필요하지?”
혹은 “그래 그럼 뭘 줄까?”

이런 대화에는 엄마가 아이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아이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직접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담겨있다.

아이의 엄마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지만 무조건 응석을 받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말을 배울 필요를 느낄 것이다.

그럼 아이는 “물!”이라고 대답할 것이며, 말을 못하는 아이는 물을 가르키거나 엄마 손을 잡고 냉장고나 수돗가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엄마는 이렇게 말하면 된다.

“물!” (간격) “해원이가 물 마시고 싶었구나. 이건 물이야. 물”

“해원이도 해볼까? 엄마 따라해봐. 물”

해원이는 분명하지 않은 발음으로 물이라는 말을 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럼 엄마는, “그래 잘했어. 다시 한 번 해볼까? 물”

이렇게 해원이는 엄마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대화에 필요한 기술과 말을 배우고 성장해 간다.

